

高麗時代 佛教彫刻의 對宋關係

崔 聖 銀*

- I. 머리말
- II. 高麗의 對宋交涉
- III. 高麗 彫刻과 北宋 彫刻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의 조각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후삼국시대를 마감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불교미술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전래된 새로운 도상과 양식은 고려 불교조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왕조 가운데 가장 고려의 미술문화에 영향을 미쳤을 왕조는 단연 宋이었다. 遼나 金, 元과는 달리 宋은 先進文化를 보유한 漢族의 王朝였다는 점에서 고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정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치경제적 교류는 문화적인 교류를 수반하였으며 여기에는 불교신앙과 그에 따른 미술의 교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송대에는 사회의 경제적인 활력을 기반으로 唐末五代의 조각을 이어 새로운 불교 미술 전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과 석굴사원이 개창되었고 불교조각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은 듯하였다. 현존하는 송대의 조각들은 이상화되고 국제적이었던 唐代와는 달리 세속화되고 현실적이지만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北宋, 南宋을 합하여 4세기에 걸쳐 있는 송대 조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五代와 元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짧아 전반적인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며, 遼代 조각에 대해서는 國內외의 기존 研究成果를 활용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작용하여 지금까지 고려 조각의 대중교섭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五代와 遼, 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

또한 고려 조각에 있어서도 수도 開京의 주요 사찰들에 봉안되었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현존 불상들이 거의 10세기와 14세기에 편중되어 있어 대송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고려와 송의 불상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고려 조각의 대송관계를 우선 北宋代를 중심으로 論議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고려와 송의 紀年佛像들이 조사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지금보다 좋은 여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고가 고려 조각의 연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高麗의 對宋交涉

고려의 대중교섭은 五代에서 北宋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북송이 건국되고 삼 년째

¹ 高麗 彫刻의 對中交涉에 관한 연구로는, 秦弘燮, 「高麗後期 金銅佛像에 나타나는 라마 佛像樣式」, 『考古美術』 166·167(1985. 9), pp. 1-25(同著, 『新羅 高麗時代美術文化』(一)志社, 1997), pp. 510-550 再收錄); 鄭恩雨, 「高麗後期の 佛教彫刻研究」, 『美術資料』 33(1983. 12), pp. 33-58; 同著,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12); 崔聖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 11(1992.12), pp. 105-130; 同著, 「遼代 圓筒形 高冠 菩薩像에 대한 考察: 高麗初期 高冠形 菩薩像과 관련하여」, 『講座美術史』 9(1997.12), pp. 47-62 참조.

되던 광종 13년(962) 고려는 使臣을 宋에 보내어 朝會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宋의 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² 그런데 고려의 대송교섭에서 특히 주목할 문제는 공식적인 외교사절에 의한 교류 못지 않게 민간교류, 즉 상인들의 왕래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점이다.³ 또한 사신의 왕래와 그에 따른 무역활동 외에도 고려 유학생들의 入宋이나 승려들의 여행 등을 생각하면 고려의 대송교류는 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성종 13년(994) 거란의 군사적 압력으로 거란 연호를 시행하게 되었고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국교는 단절되었으나⁴ 宋과의 접촉은 계속되어 사신의 파견과 민간교역, 유학생의 왕래, 중국인들의 귀화, 공물과 사여형식의 물자교환 등이 이루어졌다.⁵ 국교단절 이후에도 계속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문종 12년(1058) 문종이 탐라와 영암에서 재목을 베어 배를 만들어 송과 통교하고자 할 때, 내사문하성에서 올린

…… 우리나라는 문물예악이 흥행된 지 이미 오래며 상선이 끊임없이 출입하여 眞寶가 날로 들어 오니 중국에 대하여서는 실로 資賴할 것이 없다……⁶

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내사문하성에서 송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반대하는 이

² 『高麗史』 卷2 世家, 光宗 13年, 14年條; 『국역 동사강목』 III 고전국역총서 129(민족문화추진회), p. 229.

³ 이 점은 성종 원년(982)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책 가운데에서도 발견된다. 즉, 태조 때는 事大를 중시하였지만 몇 년에 한번 사신을 보내 교빙의 예만 닦았는데, 지금은 무역으로 인해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번거로워 중국에서 천하게 여길까 두려우므로 이제부터는 교빙하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고, 어느 때나 매매하는 것을 모두 금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려의 사신왕래가 무역을 겸하고 있으며 그 횡수가 지나치게 빈번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역 동사강목』 III, p. 247.

⁴ 『高麗史』 卷3 世家, 成宗 13年.

⁵ 穆宗 元年(998) 貢士 金成積이 宋에 들어가 科擧에 올랐고 이듬해 宋에 使臣을 보내어 조근하였으며 高麗에서는 변함 없이 宋人을 관직에 기용하고, 宋에 사람을 보내 조회하는 등,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 보인다. 穆宗 8년(1005) 宋의 文士 周衍가 來投하여 습유로 삼았고 顯宗 5년(1014)에는 내사사인 윤징고를 宋에 보내 조회한 기록이 있다. 현종 7년(1016)에는 前年에 入宋했던 郭元이 皇帝의 조서와 서적을 비롯한 여러 선물품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 해에 宋의 年號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듬해에는 형부시랑 徐訥을 송에 보내 조회하였다. 이후에도 宋 商人의 往來와 使臣에 대한 言及이 계속 보이는데 宋과 公式的인 國交가 再開되는 文宗 22년(1068)까지 56년간 宋商人의 內航이 50여 회 있었다. 『국역동사강목』 III, p. 292; 『高麗史』 卷3 世家, 穆宗 2年; 『高麗史』 卷4 世家, 顯宗 5年, 7年; 『국역동사강목』 III, p. 298, p. 301; 『국역동사강목』 IV, pp. 33-36; 『宋史』 卷487 「高麗傳」; 羅鐘宇, 「高麗時代의 對宋關係」, 『圓光史學』 3(1984.3), p. 4; 全海宗, 「對宋外交의 性格」, 『한국사』 4(국사편찬위원회, 1981), p. 334.

⁶ 『고려사』 卷8 世家, 文宗 12년 8월 己巳.

유로 송과 和好를 맺음으로서 거란을 자극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송과의 정식적인 통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민간무역이 성행하여 특히 아쉬울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⁷ 송상이 고려에 빈번히 출입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기록으로는 문종 9년(1055) 송나라 상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왕래하므로 나라에 진귀한 보배가 가득했고 고려에서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건축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사가 보이기도 한다.⁸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공식적인 국교가 단절된 현종대 이후에도 송과 지속적으로 상업적인 왕래가 이루어져 왔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⁹

고려가 공식적으로 거란과 화친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송과의 교역을 통해 꾸준히 문물을 수입한 底邊에는 고려의 對外國觀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¹⁰ 고려는 漢文化를 숭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북방의 여러 민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輕視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고려의 대거란관은 고려 초기부터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는데,¹¹ 이것은 태조 26년(943)에 내린 「訓要十條」에서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로 풍속도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衣冠制度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¹²고 이르는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거란에 대한 입장은 이후에 거란이 강성해져서 고려가 事大朝貢을 하게 되었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듯하다.¹⁴ 따라서 거란에 대해서는 송에 대해서와 같은 수용자세로 문물을 받아들였으리라 보고는 어렵다.¹⁵ 이와는 달리 漢族系 중국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진문화를 흠모하여 문물제도의 수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7 羅鐘宇, 앞의 글, p. 5.

8 송과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재개되기 이전인 문종 9년(1055) 고려 정부는 240여 명에 이르는 송나라 상인들을 娯賓館, 迎賓館, 清河館에 나누어 머물게 하고 향연을 베풀었다. 『高麗史』 卷7 世家, 文宗 9年 2月.

9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현종대(1010-1031) 이후, 宋 상인의 내항은 현종 3년(1012)부터 충렬왕 4년(1278)까지 약 260년간 계속되었는데, 內港의 回數는 약 120여 회에 달하며 그 인원은 최소한 5000명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文宗代가 110여 회, 顯宗과 肅宗代에 각각 13회로 가장 활발하였으며, 武人亂 이전까지 110여 회 내항하여 11세기 말 12세기 초가 가장 활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박종기,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6(한길사, 1994), p. 241.

10 고려의 대외국관에 대해서는 朴玉杰, 『高麗時代 歸化人の 研究』(國學資料院, 1996), pp. 18-24 참조.

11 고려 태조는 “北蕃人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같아서 굶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버리며 利를 보면 부끄러움도 잊으니 지금 비록 우리에게 복종하여 섬기고 있기는 하나 마음두고 배반함이 일정하지 않다(是歲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 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 『高麗史』 卷2 世家, 太祖 14年.

12 『高麗史』 卷2 世家, 太祖 26年 4月 “契丹 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13 前年인 고려 태조 25년(945)에 거란의 사신이 낙타 50필을 바쳤을 때 태조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므로 無道하여 화친을 맺어 이웃을 삼을 것이 못된다고 하여 거란 사신 30人을 멀리 유배하고 낙타는 萬夫橋 아래 매어 놓아 죽게 함으로써 교방을 거절하였다. 『高麗史』 卷2, 太祖 25年 10月.

文宗代 말(1046-1082)에 송과의 國交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송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¹⁶ 공식적인 사절을 비롯하여 商人, 學者, 僧侶들의 來往은 불교문화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宋의 불교경전과 불상이 고려로 전래되었다.¹⁷ 불교조각이 고려에 전래된 기록으로는 문종 28년(1074) 입송했던 金良鑑이 畫塑之工을 구해왔다든지,¹⁸ 興王寺의 협저불상이 元豐연간(1078-1085: 文宗 32-宣宗 2)에 송에서 전래된 상이라는 기록,¹⁹ 그밖에 宋의 徽宗이 예종 13년(1118)에 安和寺의 소조십육나한상을 하사했다는 기록²⁰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헌에 전하는 기록 외에도 많은 불상들이 민간교역을 통해서나 여행자들을 통해서 고려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시기에 전래된 송대의 불상 양식은 고려 불교미술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14 고려의 북방민족에 대한 인식은 여진이나 몽고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오던 女眞이 金을 建國하면서 생긴 金初의 國書본쟁이나 蒙古의 駙馬國으로 전락하여 事大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그들을 야만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몽고의 將軍 忻都가 “내가 東人(高麗人)을 보니 모두 글을 알고 부처를 믿는 것이 漢人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蒙古人들은 殺戮을 業으로 하니 하늘이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 풍속에 살육함을 주었으니 이를 마땅히 따른다고 하여 하늘이 이것으로서 죄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蒙人의 奴僕이 된 까닭이다”(『高麗史』 卷 104 列傳, 金方慶傳)라고 말했던 것은 몽고인들 자신도 고려인들이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朴玉杰, 앞의 책, p. 22 참조.

15 오히려 거란으로부터 고려에 투항했던 귀화인들 가운데 섞여 있던 거란의 匠人들이 고려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차츰 거란의 미술이 고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며 시기적으로도 거란의 멸망 이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徐兢(1091-1153)이 언급한 것처럼 “거란의 항복한 포로 수만 명 가운데 10명 중 하나가 器服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工匠”이라고 지칭한 거란의 장인들은 대부분 여진족의 공격으로 거란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고려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로 생각된다.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 朴玉杰, 앞의 책, p. 59의 표 3 및 pp. 62-63.

16 당시 고려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국력이 강성했던 태평시기였고, 宋 역시 神宗의 재위기간으로서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던 때였으므로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할 수 있었다(羅鍾宇, 앞의 글, p. 10). 宋의 神宗이 1068년에 상인 황신을 보내오고 2년 후에 황신이 같은 목적으로 고려에 다시 오자 文宗은 宋에 사신을 보낼 뜻을 전했다. 1071년 110명의 고려 사절이 송에 파견됨으로써 50년간 단절되었던 국교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고려사』 文宗 22年 7月 辛巳.

17 成宗 8년(989) 고려에서 僧 如可를 송에 보내 대장경을 청하여 그것을 주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현종 10년(1019)에도 고려가 송에 사신을 보내 하징하면서 불경을 구하여 경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高麗史』 卷4 世家, 顯宗 10年; 『국역 동사강목』 III, p. 268.

18 “……又表 求醫藥畫塑之工 以教國人 詔羅拯募願行者.” 『宋史』 卷487 高麗傳, 熙寧 7年(1074).

19 徐兢, 『高麗圖經』 卷17, 王城內外諸寺.

20 『高麗史』 卷14 世家, 睿宗 13年 壬申.

III. 高麗 彫刻과 北宋 彫刻

960년에 宋이 建國되면서 그 동안 五代十國으로 분열되었던 중국 각지의 미술이 송으로 흡수되었을 것이므로 북송 초의 미술은 대체로 五代美術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미술이 크게 일어났던 吳越이나 後蜀의 미술이 송대미술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서 목탑건축가로 알려진 吳越의 喻皓가 太宗의 命으로 開封으로 불려가 開寶寺塔을 세운 것이나²¹ 후촉의 益州(成都)에서 大藏經을 조판했다든지²² 후촉의 화가 黃居寀가 송대 화원의 대조로 활동하였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²³ 杭州 白塔의 부조에서 보이는 장신화된 보살상들의 신체와 여성적이고 우아한 자세 등은 宋代 양식의 典型을 보여준다. 또한 985년 日本 승려 주연(?-1106)이 明州의 開元寺에서 模刻하여 온 京都 清涼寺 목불입상의 세속화된 얼굴과 거의 탄력을 잃은 옷주름, 어깨가 좁고 밋밋한 평판적인 신체에서 송대 조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표현은 이미 唐末五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송대 조각으로 이어졌던 듯하다. 다시 말해, 이른바 송대 조각의 양식 요소라고 알려진 현실화되고 세속적이면서도 우아한 표현은 이미 五代에 그 기초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 고려 초기 미륵상과 五代 宋初 조각

1) 利川 長岩里 마애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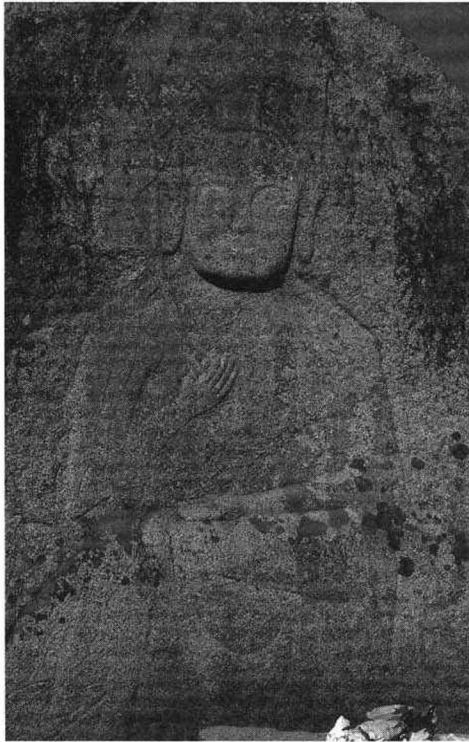
오대에서 북송 초에 걸쳐 유행하였던 보살상 유형이 반영된 고려 초기 보살상으로는 이

21 『吳越首府杭州』(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p. 122.

22 鎌田武雄 著, 鄭舜日 譯, 『中國佛教史』(경서원, 1985), p. 242.

23 鈴木敬, 『中國繪畫史』上(東京: 吉川弘文館, 1981), pp. 160-161.

24 이 보살상은 정영호, 「이천 태평흥국명 마애반가상」, 『사학지』 16(단국사학회, 1982), pp. 611-623; 同著, 「고려 시대의 마애불」, 『고고미술』 166·167(1985.9), pp. 38-39에 소개되었으며 최근 마애불 앞쪽의 절터가 발굴되어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천태평흥국마애보살좌상 주변지역발굴조사보고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시, 2002).



도 1-1 태평 2년명 마애보살반가상, 高麗 981년,
경기도 利川 長岩里

도 1-2 태평 2년명 마애보살반가상의 寶冠, 탁본



천 장암리 마애보살상을 예로 들 수 있다²⁵ 도1-1.²⁴ 이 상은 이천 설봉산성 서쪽의 평지 가람터에 전해오고 있는데²⁵ 太平興國 6년(981)에 20명의 香徒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있는 보살상이다.²⁶ 이 상의 세부를 살펴보면 우선 중앙과 양쪽이 뾰족한 원통형의 고관을 쓰고 있으며 도1-2 오른쪽으로 연꽃으로 생각되는 꽃가지를 들고 있다. 조각기법은 두부를 제외하면 저부조로 다소 치졸한 듯 보이며 비교적 섬세하게 조각된 양손은 작게 표현되어 비례면에서도 어색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보살상은 당말오대 이래 북송으로 이어지는 10세기 중국 불교미술에서 유행하던 도상이 고려에 전래된 한 예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보살상의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원통형에 가까운 고관에, 반가의 좌세를 하고

²⁵ 이천은 충주를 거쳐 계림령과 조령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의 연구』(학연문화사, 1999), pp. 109-120.

²⁶ “태평흥국 6년 신사 2월 13일 원□□ 도속의 향도 등 이십인……(太平興國六年辛巳二月十三日元□□道俗香徒等 上道……)”, 『京畿道佛蹟資料集』(京畿道博物館, 1999), p. 381.



도 2 <관음보살도>,五代 942년,
甘肅省 敦煌 출토, 東京 개인소장



도 3-1 <彌勒보살도>,北宋 985년경,京都 清凉寺

손에 持物을 들고 있는 보살상 형식은 당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대를 거쳐 송대에 크게 유행한 표현이다.²⁷ 이 형식은 일본승 圓仁이 중국에서 가져온 <오대산 문수보살도>²⁸를 비롯하여 돈황에서 출토한 天福 6년(942)의 <관음보살도>도2,²⁹ 돈황 제17굴에서 발견된 10세기 중엽의 <문수보살도>³⁰(大英博物館 소장) 등에서 보이는데, 존상의 명칭에 따라 대좌 형태나 지물, 보관장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보살상 형식이 오대 송초의 불교회화에

²⁷ 원통형 고관 보살상 형식에 대해서는 최성은, 「唐末五代와 遼代の 圓筒形 高冠 菩薩像에 대한 一考察: 高麗初期 高冠形 菩薩像과 관련하여」, 『강좌미술사』 9(1997.9), pp. 47-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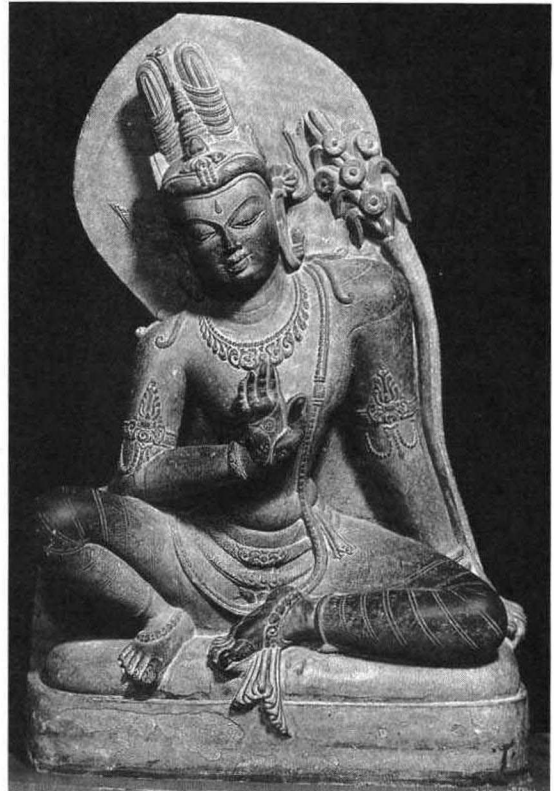
²⁸ 浜田隆, 『圖像』 日本の美術 12, No. 55(東京: 至文堂, 1966), p. 24의 圖31; 崔聖銀, 앞의 글(1997), p. 53의 圖 12.

²⁹ 奈良博物館, 『東アジアの佛たち』(奈良博物館, 1996), p. 122의 圖130.

³⁰ Roderick Whitfield, 『西域美術』(東京: 講談社, 1984), 圖142.



도 3-2 <彌勒보살도>의 寶冠 부분



도 4 彌勒보살상, 印度 팔라왕조, 10세기

서 널리 표현되었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천 장암리 마애상도 이와 같은 반가좌의 원통형 고관 보살상이 표현된 五代 宋初의 불화나 판화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천 장암리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물과 보관의 장식이다. 이 보살상의 지물은 북송 초 일본 승려 奝然이 雍熙 2년(985)에 일본으로 가져온 京都 清凉寺 목불입상의 腹藏에 納入되었던 <미륵보살도>도3-1의 지물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목판화는 原畫를 궁정화가로서 대조의 직에 있던 유명한 도석인물화가 高文進이 雍熙 원년(984)에 그리고, 越州의 승려 知禮가 새겨서 찍었다고 하는데, 화면 오른쪽의 仲休의 讚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다. 미륵보살상은 왼손은 다리 위에 내려놓고 오른손으로는 團扇(혹은 唐扇)을 들고 있다. 단선은 햇빛을 가리는 의장으로서 연화와는 달리 깃털같은 것이 달려있는 지물인데 인도 팔라왕조의 10세기 미륵보살상도4에서 보이는 龍華樹의 모습과도 비슷하여 인도 용화수의 중국적 변용이 아닌가 생각된다도3-2.



도5 彌勒보살반가상, 鎌倉時代, 奈良 興福寺

또한 미륵보살도의 보관 중앙의 장식은 둥근 원 안에 단순화된 형태의 불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장암리 상의 보관장식도1-2과 그 형태가 같다. 미륵보살의 보관에 불탑을 표현하는 것은 팔라왕조 미륵상에 나타나는 표현으로서³¹ 북송대 미륵보살상의 도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장암리像은 북송대의 미륵보살도를 범본으로 제작된 미륵상일 가능성이 크며 이 상을 조성한 20명의 香徒는 미륵을 신앙했던 향도였을 것이다. 다만, 장암리像의 반가좌는 결가부좌한 청량사 미륵보살상과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청량사상과 착의형식을 비롯한 여러 점에서 흡사한 특징을 보여 이 상과 같은 송대 불

31 팔라왕조대에는 미륵보살의 보관에 불탑이,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화불이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도상이 거의 定形化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宮治昭, 「インドにおける彌勒圖像の變遷」, 『町田甲一先生古稀記念會編 論叢佛教美術史』(吉川弘文館, 1986), p. 54.

32 伊東史朗, 『彌勒像』日本の美術 319(東京: 至文堂, 1992), p. 49, 圖98.

화를 기초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륵보살반가상도5이 奈良 興福寺에 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³²

2) 玄化寺 石塔부조 불좌상

고려 전기에는 장암리 마애보살상과 같은 보살형의 미륵상 외에도 여래형의 미륵상들이 다수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륵불은 法相宗의 主尊이므로 법상종이 융성했던 11세기에 들어오면 미륵에 대한 신앙이 더욱 성행하여 그 조상도 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³³ 그 한 예가 법상종 사찰인 玄化寺 석탑부조에서 보인다.

현화사는 현종 9년(1018)에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의 원찰로 창건되었으며 칠층 석탑은 2년 뒤인 현종 11년(1020)에 세워졌는데 王室의 佛事였던 만큼 현화사 창건공사에는 당시 최신 양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⁴ 현화사 석탑의 탑신 각면은 조각으로 장식되었는데 초층 탑신에는 正定 隆興寺 동조천수대비관음(971)의 대좌에 있는 안상(壺門)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에 중앙 본존불상의 좌우에 2제자, 2보살, 4천왕과 2공양인상의 권속을 거느린 佛會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도6}. 현존하는 宋代의 佛會조각으로는 항주 비래봉 청림동 입구의 太平 2년(1022) 盧舍那佛會가 전하는데,³⁵ 이처럼 변상도를 조각으로 옮겨놓은 듯한 불회의 표현이 당시에 유행하였던 듯하다.

한편 현화사 석탑에서처럼 탑신부에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여러 존상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는데,³⁶ 이것은 절강성 東陽 飛霞寺 동탑(939)이나 절강성 항주 梵天講寺 경당(965년), 開口 白塔과 같은 오대 북송의 장식적인 幢塔형식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³⁷ 이들 당탑들은 각층의 탑신부에 안상이나 감실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三尊

³³ 고려시대 법상종미술에 대해서는 文明大, 「法住寺 磨崖彌勒 地藏菩薩浮彫像의 研究: 法相宗美術 研究 3」, 『美術資料』 37(1985.12), pp. 42-59; 同著, 「高麗 法相宗 美術의 展開와 玄化寺 七層石塔 佛像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17(2001.12), pp. 9-23 참조.

³⁴ 현화사 칠층석탑에 대해서는 姜炳喜, 「高麗 玄化寺址 七層石塔에 대하여」, 『河炫綱教授停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혜안, 2000), pp. 183-204 참조.

³⁵ 關野貞·常盤大定, 『中國佛教史蹟』 V(東京: 佛教史蹟研究會, 1927), 圖65.

³⁶ 7층 석탑 탑신의 각면에 佛會의 장면이 부조된 것은 우리나라 불탑 변천에 획기적인 변모라고 평가되고 있다. 文明大, 앞의 글(2001), pp. 9-23 참조.

³⁷ 이처럼 기단부에 안상을 여러 개 새기고 그 안에 조각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唐末五代-북송 幢塔의 장식적인 안상조형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常盤大定·關野貞, 『支那佛教史蹟』 卷1, 圖146 참조.



도 6 玄化寺石塔 1층 탑신 부조, 高麗 1020년, 경기도 開城市 紡織洞

像, 五尊像, 七尊像 등을 조각하여 장엄하였는데 대체로 여래상을 중심으로 합장한 2보살, 2제자상의 5존상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현화사탑에서도 초층 탑신에는 뒤에서 살펴볼 11존상이 표현되었으나 2층 탑신부터는 합장한 제자,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오존상이 부조되어 있어 오대 북송 당탑형식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화사탑에 부조된 불보살상들은 전부 얼굴이 동그랗고 통통하며 대체로 兒童과 같은 표정과 신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형감은 오대 북송 초 조각의 조형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대족석굴 북산 253호감의 咸平 4년(1001) 보살입상들을 비롯한 여러 조각에서 잘 나타난다.³⁸ 현화사탑의 본존상은 둥글고 양감이 느껴지는 상호에 육계가 작은 편이고 대의는 우견편단식으로 입었는데 본존상의 작은 육계와 둥근 얼굴은 蘇州 瑞光寺塔 출토 금동불좌상(931-1017)의 육계가 낮으면서 머리의 좌우폭이 넓은 두부, 다소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과 상당히 유사하다^{도7}.

현화사탑 부조 본존상의 수인은 오른손을 들어 內掌하고 왼손은 무릎 끝에 내려놓은 시

³⁸ 『四川石窟彫塑』 中國美術全集 12 雕塑編(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88), p. 144의 圖142.



도 7 금동불좌상, 北宋 931-1017,
江蘇省 蘇州 瑞光寺塔 출토



도 8 〈彌勒佛圖〉, 仁和寺本 『彌勒菩薩畫像集』,
平安時代 1101년

무외 여원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상은 平安時代 이래의 밀교계통의 미륵상을 집대성한 일본 仁和寺本 『彌勒菩薩畫像集』(1101)에 수록된 미륵상의 도상 가운데 오른손을 올려 시무외인을 취하고 왼손으로 축지인을 결하거나,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여원인을 결한 수인도³⁹이 현화사 본존상의 수인과 가깝게 비교된다.

현종은 현화사에서 국가를 위해 미륵보살회를 개설하였고 부모를 위해 미타회를 개설하였다고 하는데⁴⁰ 현화사가 고려 법상종의 최대 사찰이고, 법상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대상이 미륵이며, 이 부조가 석탑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일층 탑신부에 새겨진 점,

³⁹ 『大藏經』 圖像部 6, 『彌勒菩薩畫像集』, 圖21, 23; 伊東史朗, 앞의 책, p. 42.

⁴⁰ 『大慈恩玄化寺碑陰記』, 『朝鮮金石總覽』 上, pp. 241-252; 『海東金石苑』 附錄 上, p. 241.

그리고 상 자체의 도상적 특징을 종합해 볼 때, 현화사탑 부조 본존상은 미륵불일 가능성이 크다. 즉, 이 부조는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미륵불과 그 권속을 표현한 미륵용화회의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⁴¹

2. 승가대사 신앙과 그 도상문제

1) 북한산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

법상종 관계의 미술 외에 현종대 불교미술의 대송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으로 승가대사 신앙과 함께 승가대사상 도상의 전래를 꼽을 수 있다. 광배 명문을 통해 현종 15년인 太平 4년(1024)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⁴² 북한산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도⁹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앙경향과 그에 따른 예배존상의 도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⁴³

승가대사(?-710)는 서역⁴⁴의 승려로 唐 龍朔 초(661) 중국에 와서 各地를 巡歷하다가 泗州 臨淮縣에 普照王佛을 본존으로 모시는 普光王寺를 세웠다.⁴⁵ 泗州는 대운하와 淮水가 만나는 水陸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교리에 밝고 誦呪에 능하며 수행이 뛰어났던 승가대사

⁴¹ 문명대 교수는 이 미륵용화회 장면의 맨 앞 좌우에 있는 인물상은 왕과 왕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文明大, 앞의 글, pp. 18-19). 이 사찰이 모후의 명복을 빌고자 건립되었으므로 이 두 인물은 미륵용화회에 나아가 설법을 듣는 현종의 선망부모 안중옥과 현정왕후 황보 씨(경종의 비이며 성종의 누이)일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⁴² 광배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太平四年甲子 首秋月 莫開□□□ 棟梁釋智光 副棟梁釋成彦 磨琢者釋光儒 釋慧□□□ 鐵□□□丘.” 李蘭暎 編, 『韓國金石文追補』(亞細亞文化社, 1976), pp. 54-55; 黃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pp. 256-257.

⁴³ 이 상에 대해서는 今西龍, 「京畿道 高陽郡 北漢山遺蹟 調查報告」, 『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朝鮮總督府, 1916), pp. 47-50; 李弘植, 「僧伽寺 雜考」, 『郷土서울』 6(1959); 文明大, 「승가사석조승가대사상」,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13(1991.12), p. 439 참조. 최근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南東信, 「북한산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과 승가신앙(僧伽信仰)」, 『서울학연구』 14(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3), pp. 3-46.

⁴⁴ 승가대사에 대한 最古의 기록은 李邕(673-742)의 「大唐四洲臨淮縣普光王寺碑」에 의하면 승가대사는 서역의 何國人이라고 하는데, 故국은 소그디아나의 쿠샤니카(Kushanika), 즉 『대당서역기』에 보이는 屈霜你迦이다.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4(法藏館, 1969), pp. 183-184.

⁴⁵ 승가에 대한 기록으로 註44의 인용의 「보광왕사비」를 선두로 하여, 『宋高僧傳』 卷18 「僧伽和尚傳」; 『太平廣記』 卷269 「僧伽大師傳」.



도 9 석조승가대사상, 高麗 1024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僧伽寺



도 10 泗州和尚圖, 五代 10세기, 甘肅省 敦煌 72窟

의 절에는 주변의 불교도들이나 여행객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사후에는 그에 관한 신비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보광왕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되었다. 승가대사에 대한 숭배도 널리 확산되어 승가대사의 화상이 대량으로 그려졌고 중국의 여러 사찰에는 승가대사의 화상을 모셔서 예배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⁶

더욱이 당말오대부터 승가대사는 십일면관음의 화신으로 航行, 기우, 치수, 치병 등에 영험한 존재로 여겨져 민중들 사이에서 더욱 널리 신앙되어 개봉의 大相國寺를 비롯한 전국

⁴⁶ 南東信, 앞의 글, pp. 6-13 참조. 중국 승가대사 신앙에 대해서는 牧田諦亮, 「中國に於ける民俗信仰成立の一過程: 泗州大聖僧伽和尚について」,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創刊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1984.11), pp. 264-286 참조. 승가대사상에 대해서는 羅世平, 「敦煌泗州僧伽經與泗州和尚信仰」, 『美術研究』1(北京: 中央美術學院, 1993), pp. 64-68; 徐萃芳, 「僧伽造像의發現和僧伽崇拜」, 『文物』 제5기(총 480기, 1996), pp. 50-58 참조.

의 여러 사찰에 승가대사상이 봉안되어 신앙되었던 것 같다.⁴⁷ 특히,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유명 사찰인 까닭에 외국의 여행객이나 순례승들이 반드시 참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⁴⁸ 승려들의 對唐교류가 활발하였던 통일신라에도 승가대사가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⁴⁹ 신앙적으로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던 것 같다.⁵⁰ 특히, 승가사가 있는 삼각산은 현종과 관계가 밀접한 곳이었으며,⁵¹ 이후 역대 왕들이 승가굴(승가사)에 행차하는 기사가 보이는 점에서 고려 왕실의 승가대사 신앙이 돈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²

현존하는 승가대사의 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돈황 72굴에 “聖者泗州和尚”이라는 명문이 있는 五代의 벽화로써 머리에 두건(風帽)을 쓰고 가사를 입고 두 손을 모아 배 앞부분에 놓은 모습도¹⁰이다.⁵³ 승가사의 승가대사상도 두건을 쓴 좌상으로 현재 호분이 두껍게 덮혀 있어 원래의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광대뼈가 약간 돌출한 가름한 얼굴에, 목뼈와 쇄골이

47 『宋會要輯稿』 「職官」 25에 회녕 9년(1076) 대상국사 사주원에 화재가 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徐幸芳, 앞의 글, p. 53.

48 일본의 순례승 圓仁(은 승昌 5년(845)에 이 절을 방문했으며 승가화상의 초상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주연은 983년에 이곳을 순례했으며 成尋도 이곳에 들러 당시의 모습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牧田諦亮, 앞의 글, pp. 34-38). 小野勝年, 앞의 책, 권2, p. 277 및 278-279의 註1; 권4, p. 182; 南東信, 앞의 글, p. 9의 註23 참조.

49 崔致遠의 문집에는 신라의 狼迹寺 승려 秀台가 승가대사의 행적에 대해 많이 듣고 삼각산에 굴을 파서 돌로 승가대사의 모습을 조각하여 모셨는데 영험함이 알려져 국가에서 봄가을로 재를 지냈다는 내용을 기록한 삼각산의 승가대사굴에 관한 기사가 전해왔던 것 같다. 李顯, 「三角山重修僧伽窟記」, 『東文選』 卷64.

50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入宋하는 사절이나 승려들을 통해서 당시 송에서 성행하였던 승가대사 신앙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宋 太平興國 7년(982)에 泗州 보광왕사의 승가탑이 개수되어 13층 목탑이 되었으므로(牧田諦亮, 앞의 글, p. 42) 이후 984년이나 989년에 입송하였던 사신들이나 대장경을 구하러 들어갔던 如可 같은 승려들이 수도 개봉으로 들어가면서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

51 태조의 제8자인 安宗 郁과 獻貞왕후 황보 씨 사이에서 태어난 현종(大良院君 詢)은 성종 사후에 친추태후의 펄박을 받아 12세 때 법상종 사찰인 崇敎寺에서 출가하였고 즉위 전에는 삼각산 신현사에서 3년간 살았으므로 그 주변의 사찰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 예로 그가 현화사를 창건하고 북한산 삼천사의 주지 법경을 초대 주지로 삼았다. 삼각산, 북한산 일대의 삼천사, 신현사, 장의사 등은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清初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p. 241, 249.

52 이는 현종이 즉위한 이듬해(1011)에 자신의 부친 安宗 郁이 귀양가 있다가 죽은 泗水縣을 泗州縣으로 고쳤다는가(『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이후 文宗代에 大覺國師 義天이 入宋하여 승가대사 신앙의 본산인 보광왕사에서 왕의 생신재를 지내는 것을 보더라도(『大覺國師文集 外』, 東國譯經院, 1995, p. 141) 십일면관음보살의 화신으로서 그 신기한 기적과 놀라운 영험으로 알려져 있던 승가대사에 대한 존숭이 고려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53 羅世平, 앞의 글, p. 65; 馬世長, 「中韓古代佛教文化交流兩例」, 『실�크로드文化와 韓國文化』(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pp. 238-239; 南東信, 앞의 글, p. 40의 圖6.



도 11-1 石窟庵 龕室 문수보살상, 統一新羅 8세기, 경북 월성군

도 11-2 〈達磨圖〉, 『先德圖像』, 平安時代 1186년, 東京國立博物館



드러나는 여인 신체, 왼손은 가사의 소매자락으로 덮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올려 검지를 곧게 펴고 있는데 크고 사실적이다. 무릎은 넓은 편이며 옷주름은 넓은 띠주름으로 표현되었고, 광배는 대단히 화려하여 연화문, 당초문, 보상화문, 화염문이 광배면에 가득 새겨져 있는데 섬세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광배의 중앙 위쪽에 새겨진 문양은 오대 송초에 걸쳐 중국 강남지역에서 유행하던 문양으로 湖州 飛英塔에서 발견된 나전칠기 經箱을 비롯한 많은 공예품과 조각에 나타나는 표현이다.

승가사 승가대사처럼 두건을 쓴 모습의 승가대사상은 송대 전 시기에 걸쳐 여러 구 전해오고 있는데 대부분 결가부좌한 자세로 두 손은 마주하여 선정인을 결하거나 소매 속에 넣은 자세로 두건을 쓰고 寶珠나 錫杖을 持物로 들고 있는 지장보살과 구별된다. 그런데 승가사상은 중국의 승가대사상과는 달리 오른손의 손가락을 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손 모습은 辯舌을 상징하는 針印으로 생각되는데 석굴암 감실 문수보살상이나 『先德圖像』에 수록된 達磨와 善無畏의 白描圖像 등도11에서 보인다.⁵⁴ 즉, 이것은 중국의 승가대사상 형식에 고려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중국의 도상이 고려

에 와서 변모된 예를 승가사상보다 2년 먼저 조성된 사자빈신사지 석탑(1022) 인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인물상

충북 제원군의 獅子頻迅寺址 석탑은 현종 13년(1022)의 명문이 있는 석탑으로 원래 구층 석탑이었던 이 탑의 상층기단부에 놓인 네 구의 사자상의 중앙에 인물상도 12이 있다.⁵⁵ 이 탑의 하층기단은 마치 불상의 방형대좌처럼 상·중·하대로 되어있어 마치 이 인물상의 대좌인양 보이게 의도된 듯하다. 인물상은 두건을 쓰고 살이 많은 둥근 얼굴에 목이 거의 없는 듯하여 양 어깨에 머리가 파묻힌 듯 움츠린 자세이다. 가사는 두껍고 목 주위가 둥글게 파졌으며 두 손으로는 智拳印을 결하고 있는데 손의 조각에서 양감이 느껴진다. 체구의 비례에서 볼 때 좌폭은 넓은 편이며 무릎에는 옷주름이 선각되어 있다.

이 상은 머리에 두건을 썼고, 수인은 지권인이므로 그 존상 명칭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의 불교신앙 경향을 고려한다면 승가대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서, 먼저 이 상은 앞에서 살펴본 승가사 승가대사상보다 2년 먼저 조성되었는데, 당시는 승가대사 신앙과 함께 두건을 쓴 승가대사의 도상이 고려에서 유입되던 때이므로 두건을 쓰고 있는 사자빈신사지의 인물상 역시 승가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움츠린 듯한 사자빈신사지 인물상의 자세는 蘇州 瑞光寺탑에서 발견된 목조승가대사상(931-1017 하한)도¹³ 과 상당히 흡사하므로⁵⁶ 이와 같은 10세기 말-11세기 초의 북송대 승가대사상을 範本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물상이 지권인을 결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탑 기단에 새겨진 명문에 “사자빈신사”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실차난타 역의

54 이 수인은 석굴암 감실 문수보살의 손 모습으로 논쟁 등을 하면서 설득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文明大, 『吐舍山石窟』(한국언론자료간행회, 2000), p. 277, 및 p. 288. 유사한 손 모습이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先德圖像』에 수록된 達磨의 善無畏의 白描圖像에서도 보인다. 玄証筆, 『先德圖像』(1186); 佐和隆研 濱田隆 編, 『密教美術大觀』4(東京: 朝日新聞社, 1984), p. 167.

55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기단 남면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佛弟子高麗國中州月 岳獅子頻迅寺棟梁 奉爲 代代聖王恒居萬歲天下太 平法輪常傳此界他方 永消怨敵後愚生塔婆 卽知花藏迷生卽悟正 覺 敬造九層石塔一坐 永充供養 太平二年四月日謹記.”

56 蘇州市文管會 蘇州博物館, 「蘇州市瑞光寺塔發見一批五代, 北宋文物」, 『文物』 제11기(1979), p. 23의 圖3.



도 12 獅子頻迅寺址石塔 人物像, 高麗 1022년,
충북 제원군



도 13 목조승가대사상, 北宋 931-1017년,
江蘇省 蘇州 서광사탑 출토

80권본 『華嚴經』에 나오는 “사자빈신”에서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절은 화엄종계통의 사찰임을 알 수 있다.⁵⁷ 한편, 승가대사의 행적에서도 화엄종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승가대사가 사주에 세운 보광왕사에 봉안했던 부처는 “普照佛”이었는데, 『華嚴經』에 여래의 정수리에 광명을 내어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32종의 대인상 가운데 “보조불방편해”를 비롯한 11종의 대인상에 “普照”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⁵⁸ 즉 화엄종 사찰인 사자빈신사에서 석탑을 건립할 때 당시 고려에 유입되기 시작한 도상형식에 맞추어 승가대사상을 탑에 봉안

57 實叉難陀가 번역한 80卷本 『華嚴經』의 「入法界品」과 般若가 번역한 40卷本 『華嚴經』에 나오고 있다. 『新修大藏經』 제10권 華嚴部下, 320 a, 326 c, 662b, 663a, 673a.

58 “…… 如來頂上有大人相 名曰普照佛方便海 圓滿雜寶以爲莊嚴 種種摩尼寶王莊嚴 金剛光明世界所起 普照一切法界 ……”, 『華嚴經』 卷48, 如來相海品 29; 『大藏經』 卷9, 601; 80권본 『華嚴經』 卷48, 如來十身相海品 34; 『新修大藏經』 卷10, pp. 205 중-206 하; 南東信, 앞의 글, pp. 16-17.

하되 화엄종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의 지권인을 결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화엄사의 四獅子石塔에서처럼 탑에 僧像을 배치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僧像의 이미지를 택하여 조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立石寺 마애불좌상과 11세기 중·후반 북송 조각

그런데 고려와 송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기간을 통털어서 가장 그 강도와 수준이 높았던 시기는 역시 文宗代(1046-1083) 이후일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宋代 불교미술의 전래에 관한 보다 확실한 기록이 전한다. 金良鑑이 宋에서 화가와 조각가를 데려오고(1074), 개경의 興王寺에는 元豐年間(1078-1085)에 宋에서 보내온 협저불상과 元符 연간(1098-1100)에 보내온 大藏經, 神宗代(1068-1085)에 開封 相國寺의 벽화를 모사해 온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安和寺에는 宋의 徽宗이 보낸 소조십육나한상(1118)과 御書 편액이 있었다.⁵⁹

과연 당시 宋으로부터 어떠한 양식의 미술이 고려에 전래되었는지 현존하는 송대 조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섬서성 子長의 鐘山석굴(1067-)의 조각은 인간적이고 세속화된 송대 조각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⁶⁰ 또 唐代 이래 소조조각의 전통이 내려오던 山西지방의 長子縣 崇慶寺 소조나한상과 보살상들(1079)이나 장자현 法興寺 소조보살상(1111)은 唐末의 조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실화, 세속화가 심해진 일면을 알려준다.⁶¹ 이상들이 위치한 지역은 송의 수도 개봉과는 떨어져 있지만 그 조각양식은 고려에 전래된 불상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 불상으로 수도 개봉을 비롯한 주요 사찰의 상들이 전하고 있지 않아 영향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⁵⁹ 이 절의 幡竿에 “大宋皇帝聖壽萬年”이라고 쓰여져 있을 정도로 당시 宋과의 관계는 밀접했던 것 같다.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사우」 정국안화사, 흥국사, 왕성내외제사.

⁶⁰ 陝西省의 子長, 延安, 富縣, 黃陵 등에 소재한 宋代 석굴들은 당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던 永興軍路 線上에 개착된 석굴들로서 西夏와의 관계가 안정되었던 11세기 중엽 이후, 즉 1060년대부터 1090년대에 걸쳐 개착되기 시작한 석굴들이다. 王子云, 『陝西古代石雕刻』(陝西人民出版社, 1985), 圖94-136; 李滌, 『陝西佛教藝術』(臺北: 藝術家出版社, 1999), pp. 166-198 참조.

⁶¹ 이 집은 하화엄사 소조불보살상군을 비롯한 遼代 조각과 상통한다. 또한 산둥성 영암사 나한상들도 산둥지역의 흙을 사용해서 조성한 嘉祐年間(1056-1063)의 작품들이다. 濟南市文管會·濟南市博物館, 『山東長清靈巖寺羅漢像的製作年代及有關問題』, 『文物』 제3기(1984), pp. 76-82.



도 14 立石寺마애불좌상, 高麗 1090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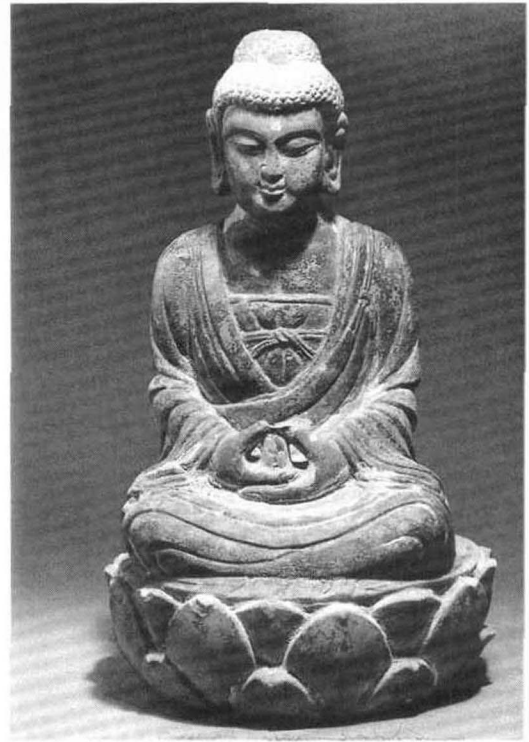
도 15 마애불좌상, 北宋 1067년경,
陝西省 子長 鐘山石窟

이 시기의 기년명 불상으로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상은 원주 立石寺 마애불좌상 도14 으로서 명문을 통해 元祐 5년(1090)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⁶² 이 마애불의 특징으로는 육계가 낮아 머리와 육계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中髻珠가 크게 강조되었으며 나발이 굽은 머리에, 이마가 좁고 살이 많은 얼굴, 둥근 어깨, 가슴쪽으로 올라온 內衣가 수평으로 표현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양식계열로 추정되는 원주 출토 철조아미타불좌상 도16은 철불과 마애불이라는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석사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데, 내의를

⁶² 이 마애불의 왼쪽 대좌 옆에 세로로 “元祐五年庚午三月日”의 銘文이 새겨져 있다. 이 상에 대해서는 林玲愛, 「元祐 5年(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12(1999), pp. 195-211; 同著, 「고려전기 원주 지역의 불교조각」, 『美術史學研究』 228·229(2001.3), pp. 39-63 참조.



도 16 원주 출토 철조아미타불좌상, 高麗, 國立中央博物館



도 17 석조아미타불좌상, 北宋 嘉祐年間(1056-1063), 浙江省 金華 萬佛塔 출토

묶은 띠매듭이 리본형으로 표현되었고 아미타구품인을 결하고 있다.⁶³ 이 상들은 조성하한 이 嘉祐年間(1056-1063)인 절강성 金華 萬佛塔 출토의 석조아미타불좌상도17과 治平 4년(1067)부터 조성된 섬서성 子長 鐘山석굴의 벽면에 새겨진 마애불좌상도15들에서 그 祖形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수평으로 올라온 內衣와 그 매듭, 강조된 중계주, 좁은 이마, 결가부좌한 다리선을 따라 새겨진 옷주름, 단판 연잎의 이층으로 표현된 상대 앙련좌 등, 입석사 마애불과 원주 출토 철불은 11세기 중·후반의 북송양식을 수용하여 고려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철불의 인간적이고 세속화된 얼굴표현은 앞의 송대 조각들과 연관성을 시사한다.

⁶³ 이 두 상은 같은 계열로 추정되고 있다. 林玲愛, 앞의 글(2001), p. 52.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조각과 북송 조각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차적인 시도를 통해서도 그 동안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오던 것과 달리 고려 조각의 대송교섭이 대단히 활발한 편이었고 고려 불교미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에서 유행하였던 불교신앙은 그에 따른 미술과 함께 고려로 전래되어 고려 불교계에 수용되었는데, 승가대사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미술 도상과 양식의 단순한 모방이나 차용의 단계를 넘어서 고려미술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며 새로운 변모를 이루어 낼 수 있을 만큼 당시 고려의 불교계와 불교미술계가 성숙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조화시키고 여러 가지 요소를 절충하여 고려 특유의 미술을 이루어 내었던 것은 현화사 석탑의 부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몇몇 예에서처럼 고려의 불교조각은宋代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대체로 고려 나름의 특성을 잃지 않고 전개되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불교조각, 불상, 고려 조각, 고려 불상, 북송 조각, 대송관계, 미륵불상

ABSTRACT

Relations between Buddhist Sculpture of Koryo and Song China

Choe Song-eu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ylistic and iconographic influence of the Chinese Buddhist sculpture of the Song period on Koryo Buddhist sculpture. In the Koryo period, official relations with Song China were inaugurated in 962 A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ccompanied by religious and cultural relations. In addition to exchanges of envoys, Korean merchants, monks and students visited Song China, and their frequent visit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cultural interchange. Even after offici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temporarily suspended in the eleventh century, merchants of Song and Koryo continued to carry on trade.

Among extant statues, the rock-cut Bodhisattva image of Changam-ri (長岩里) at Ichon, dated 981 AD, shows one of the Buddhist iconographies popular in the Chinese Buddhist art of the tenth century. This image of a seated Bodhisattva wearing a high crown is quite similar to the ink-print image of Maitreya Bodhisattva at Seiryoji (清涼寺), Kyoto, discovered in the cavity of a wooden Sakyamuni image which Japanese pilgrim-monk Chonen brought from China in 985 AD. Maitreya Bodhisattva is holding a fan called a Tang-fan, which people used to shoo flies. Fans here are most likely a sort of stylistic sinisization of the Nagavrksa (龍華樹) which each Indian Maitreya image of the Pala period is normally holding in its hand. He also wears a high crown with a small stupa in its center. A small stupa represented in a crown is also a typical symbol of

Maitreya popular in the Pala period.

Another example that shows Chinese influence on Koryo Buddhism and Buddhist art is the cult of Priest Sangha (僧伽大師). According to the record, the Buddhist monk Sangha came to China in the early 660's (T'ang period) from Central Asia. He became famous in China, and after his death miraculous stories about him grew, and being considered as an incarnation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he was fervently worshipped by Buddhists in the Song period. The cult of Priest Sangha was introduced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and became popular in the Koryo period. Kings of the Koryo period paid a visit to Seunga-sa (僧伽寺) to pray to the Priest Sangha. The iconography of Priest Sangha of the Song period is a monk wearing a hempen hood. The stone image of monk Sangha at Seunga-sa, dated 1024, exhibits the close similarity between Priest Sangha of Song and Koryo, differing mainly in his hand gesture: the one at Seunga-sa raises his hand and spreads one finger as if pointing out something. This hand gesture is normally regarded as a representation of a discussion or a debate, as we can see in the seated Manjusri Bodhisattva image of Sokkuram Grotto, and is not seen in the Priest Sangha images in China, because the hands of the Priest Sangha images in China are usually covered with garments.

Beside the above-mentioned examples, there are many other unique elements of style and iconography of Koryo Buddhist sculptur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Song counterparts. It will be worth mentioning that they show that artisans of the Koryo period did not simply copy Chinese style and iconography, but modified it into Koryo style to make a real Koryo art.